

[안전박사 랑이]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유괴실종)

활동목표:

-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제자리에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역할극을 통해서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배우고 실천 할 수 있다.



<p>멀리 생각하기</p>	<p><b>모티브활동</b>  <b>큰-작은별, 꼬마별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응용 게임</b>                  ▶ “000 꽃이 피었습니다” 응용게임을 통해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제자리에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p>
<p>넓게 생각하기</p>	<p><b>‘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관람하기</b>                  ▶ 톡톡랜드에서 엄마를 잃어버리게 된 도치와 총이.                  엄마를 찾아 혼자 돌아다니던 도치는 이상한 아저씨에게 잡히고 만다.                  하지만 다행히 총이의 도움으로 도치는 엄마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제자리에서 울지 않고                  엄마를 기다린 총이도 결국 엄마를 만나게 되고, 함께 도치 가족을 만나러 간다.</p>
<p>깊게 생각하기</p>	<p><b>‘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되새기기</b>                  ▶ 인형극 내용을 되새겨 보며, 여러가지 질문과 자유로운 상상을 나눈다.</p>
<p>다르게 생각하기</p>	<p><b>확장체험활동</b>  <b>큰-작은별, 꼬마별 : 역할극 활동</b>                  ▶ 놀이터, 놀이동산, 백화점에서 유괴 실종 됐을 때 대처방법을 역할극을 통해 배워본다.</p>
<p>다시 생각하기</p>	<p><b>활동지 가정 연계학습</b>                  ▶ 인형극 후 지급되는 활동지를 통해서 가정에서의 연계학습을 할 수 있다.</p>

※ 연령별 상황에 따라 본 계획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